

『제품통합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세미나 개최

한국법경제학회와 LECG Korea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후원한 「기술혁신에 따른 제품통합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세미나가 기업인,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6일(목)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현행 공정거래법과 기술발전 속도 사이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법제도가 기술혁신에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개진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숙명여대 유진수 교수는 끼워팔기가 상호연동을 거부하거나 타사 제품에 대한 접속을 거부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복사기와 토너, 컴퓨터와 펀치카드도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사례이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이 얻는 효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브라우저와 미디어 플레이어가 함께 제공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경우 경쟁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제품결합 자체를 규제하기 보다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를 공개하는 등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폈다.

한편, 토론에서는 한국의 실정법과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적인 측면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